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탈출기 3: 1-8, 13-15 | 제2독서 | 코린도1 10:1-6:10-12 | 복음 | 루카 13:1-9

◎말씀 < ‘~해도 될까요.’ , ‘고마워요. 미안해요.’ >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13,5)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금 잘 들여다보고 엉켜있는 제거하고 가꾸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에 주님의 다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루카 6,45)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말의 그릇이요 뿌리가 되며, 말은 마음의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말은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때로 우리의 좋은 말은 우리의 마음 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면서 또한 우리 삶을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고백의 기도에서 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회개’에 대한 주님 말씀을 ‘생각과 말’과 연결해서 묵상해봅니다. 우리 마음 밭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일굴까요? 그것은 마음안의 부정의 생각과 말을 긍정의 생각과 말로 바꾸는 삶입니다. 이에 응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에 담긴 내용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다툼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로, 분열의 언어를 일치의 언어로, 불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절망의 언어를 희망의 언어로 슬픔의 언어를 기쁨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과 말의 복음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마음과 말의 복음화를 일구어가는 삶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놓는 말이 되어 형제들과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 봅시다.

페르폴리아노 교부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 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은 ‘나를 키우는 말’에서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라고 했습니다.

‘~해도 될까요’ ,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번 사순시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이 말들은 어떨까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영성체 할 때 바친 기도는 우리도 영성체 할 때 마다 같은 기도를 바치며 말의 씨앗을 가꾸기를 일깨워 줍니다. “영성체를 할 때, 나는 구세주께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 내가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3월26일(화)	사순 제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405.00 \$ 988.00
3월27일(수)	사순 제3주간 수요일	오전10시 (장례미사)	미사예물 성소후원	\$ 287.00 \$ 55.00
3월28일(목)	사순 제3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80.00 \$ 32.00
3월29일(금)	사순 제3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320.00 \$ 60.00
3월30일(토)	사순 제3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3,195.00
3월31일(일)	사순 제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2명 성인: 170명
교무금 봉헌자	황성연. 최준규(3-4월) 권영일(2-3월) 김수영(1-2월) 우순이. 박을생. 박원상. 김에릭. 현익균. 신영후. 최이주. 정규선. 김길록. 장대석(3월) 윤재경. 엄영자(4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후회뿐인 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말하다가 / 한 생애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 하느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 나 자신과의 곡선의 관계 / 시원하고 투명하길 바라지만 /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복잡하고 / 그래서 부끄러워요 / 좀 더 높이 비상할 순 없는지 / 좀 더 넓게 트일 수는 없는지 / 좀 더 밝게 웃을 수는 없는지 나는 스스로 답답 하여 / 자주 한숨 쉬고 남몰래 운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기도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 부끄러운 중에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을 치는 이 시간은 / 눈물 속에도 행복하다고 / 바람 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봅니다.- 이해인의 시 <부끄러운 고백>

최근에 밀양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내가 잘 아는 언니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미사 20분 전 쯤 주례사제가 고해성사를 보실 분은 지금 봐도 된다 해서 고해실로 들어갔는데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다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니 연이어 성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잘 아는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일은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날도 그랬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고해실로 들어갔는데 성사를 보고나선 활기찬 자유가 내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성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는데 어찌나 자신을 큰 죄인으로 비하 시키고 절절히 통회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회하여 반세기를 살아온 지금은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유한한 내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죄뿐이고 자랑할 것은 약점뿐임을 차츰 알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주에 한 번씩 묵상 나누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공동체에 잘못된 것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 하는 모습은 그리도 겸손해 보이고 아름다운데 막상 내 차례가 오면 진땀이 날만큼 부끄럽고 늘 비슷한 걸 말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서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림시기나 사순시기에 판공성사표를 들고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교우들의 모습은 얼마 아름다운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사의 은총으로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로운 행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고해성사를 보기보다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나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후회뿐인 기도라도 자주 바치는 이 사순절에 내가 아직 살아서 참회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참회한 만큼의 기쁨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사랑에 대해 / 너무 많이 말한 것이 후회됩니다 /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 남에게 기도를 가르치려 한 것도 후회됩니다 / 진정 후회없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 /세상에선 참 어려운 일이네요 / 오래고 오래 된 사랑의 하느님 저의 게으른 푸념을 항상 내치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해인의 시 <후회뿐인 기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체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김광진.요한 박모란.글라라/원혜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박원상.토마스			

◎희망◎

간장종지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것이다” 라고 프랑스의 한 시인은 말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미 2천년전에 하신 분이 있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다.

강은교 글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